

문화방송 노보

무단협 1455일째

타임오프해지 387일째

조능희위원장단독피업 282일째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노동조합의 역사는 계속된다

김연국 · 도건협 12기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출사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노동조합)가 12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제 위원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지부 김연국 기자가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러닝 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 후보로는 도건협 현 대구지부장이 나섰다. 김연국 도건협 후보는 어제 후보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주와 다음주 전국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새 집행부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선거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이 소요되는 선거운동과정이 끝나면 2월 2일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모바일투표를 병행한 본투표가 실시될 계획이다. 개표는 2월 8일 저녁 7시이다.

선거 일정

선거 운동	1.9 ~ 2.1
선거인명부 열람	1.16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 확정. 각 지부별 명부 열람
부재자 투표	2.2 ~ 2.3
본 투표	2.6 ~ 2.8 (모바일투표 2.7 ~ 2.8)
개 표	2.8 저녁 7시

제12대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후보자 출마의 변



김연국 위원장 후보

- 1997년 MBC 입사
- 2007년 노동조합 보도 민실위 간사
- 사회부, 정치부, 시사매거진2580
- 현 보도본부 보도NPS준비센터

폐허가 된 MBC, 재건이 시작됩니다

5년 전 오늘, MBC 기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누적된 보도 통제와 편파 보도에 항의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양심과 의무에 따라 우리 2천조합원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전 현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기자회견장 등 6명이 해고되었고, 200명이 직무에서 축출됐습니다.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추락했습니다. 1천만 개의 촛불이 밝힌 이 겨울 민주주의의 장에 MBC가 설 곳은 없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그 주인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 MBC를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바로 그들입니다. 박근혜-최순실 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지탱하고 단물을 뺀 MBC 내부 소속의 부역 언론인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굴종과 침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 폭압은 강했고, 힘은 모자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외롭게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공부를 위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잠시 피했다 나중에 무임승차하려는 건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2017년 오늘 우리 모두가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이 열어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공간에 무임승차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공영방송 재건이라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MBC 방송강령 전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방송강령은 우리에게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인권존중, 사회정의와 민주질서 옹호, 공정방송,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저들의 폭주를, 지금의 MBC를 멈춰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새로운 MBC를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패배의 기억은 더 이상 없습니다. 미래만 있습니다.



도건협 수석 부위원장 후보

- 1995년 대구 MBC 기자로 입사
- 2011~12년 대구지부 부지부장
- 현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
- 현 대구지부장

우리의 싸움은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사상 최장기 파업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MBC를 장악한 지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MBC는 점점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말긴 방송을 권력에 바친 자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오랜 싸움에 지쳐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 탓입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자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이 정권을 만들어낸 국민들이 원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MBC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권이 마음대로 낙하산을 내려 보낼 수 있는 소유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 M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방송은 서울과 지역 모두의 문제입니다.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법과제도 개혁 투쟁과 함께, MBC를 장악한 부역자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결사투쟁을 해야 합니다.

“MBC를국민의 품으로”

2012년 우리가 들었던 손피켓에 쓰여 있던 글귀입니다.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가 한창일 때, 언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5만 명의 촛불 시민들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MBC에 있다고 했더니 야유가 쏟아지더군요. 미안했고, 또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1년 넘게 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경북구미의 한 해고노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MBC가 망가지기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들 편에서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의 곁으로 돌아갑시다.

취재현장에서, 제작현장에서 욕먹는 게 속상하시죠? 저도 동료 기자들, PD들이 욕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만큼 원망한다는 어느 분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니까 욕도 하는 거지요. MBC에 거는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욕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멸할 지도 모릅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싸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싸웁시다.

제12대 서울지부 위원장 · 부문 부위원장 후보

서울지부 위원장 후보



김연국 조합원 | 1997년 입사
현 보도본부 보도NPS준비센터

편제부문 부위원장 후보



김철영 조합원 | 2000년 입사
현 라디오국 제작4부

영미부문 부위원장 후보



정상희 조합원 | 2002년 입사
현 영상미술국 영상2부

기술부문 부위원장 후보



김한도 조합원 | 2000년 입사
현 디지털기술국 방송IT팀

경영부문 부위원장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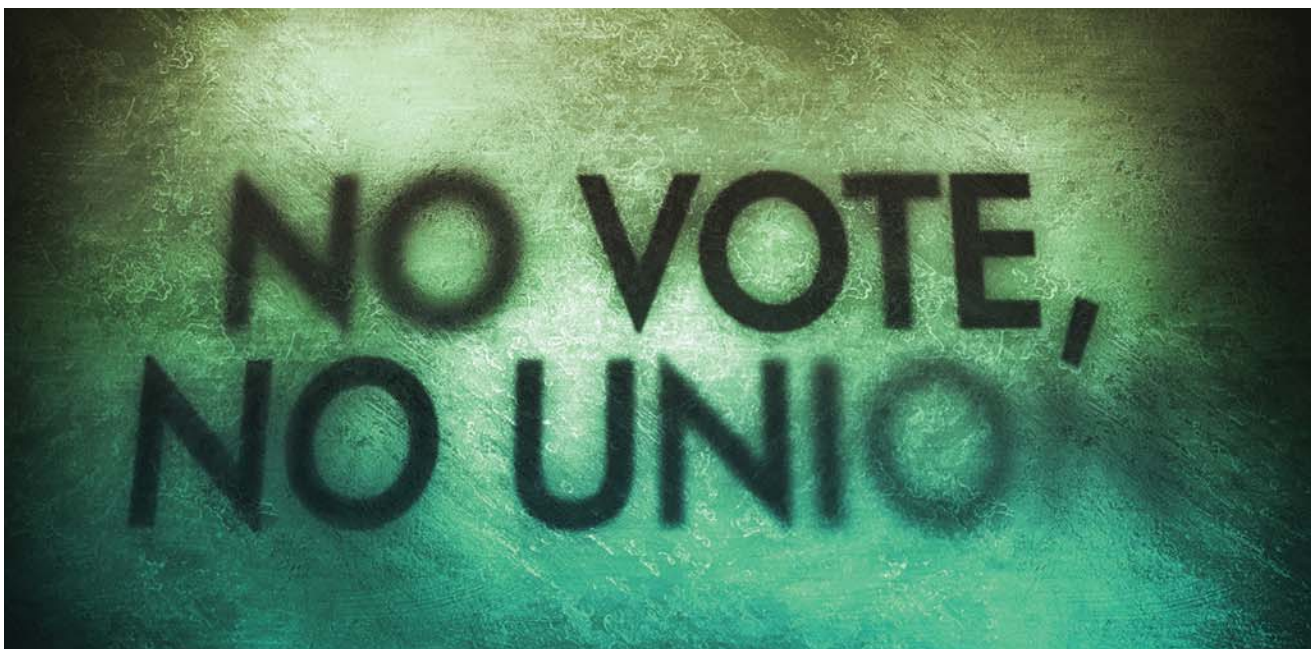


조소형 조합원 | 2003년 입사
현 광고국 광고영업부

보도부문 부위원장 후보



박지민 조합원 | 2001년 입사
현 보도국 경제부



선거인명부 열람

1.16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 확정
각 지부별 명부 열람

부재자 투표 2.2~2.3

본 투표 2.6~2.8
(모바일투표 2.7~2.8)

개표 2.8 저녁 7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MBC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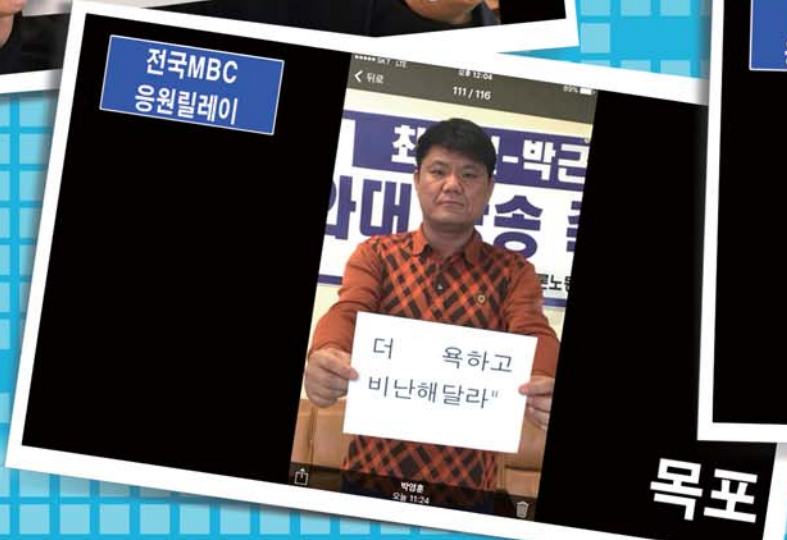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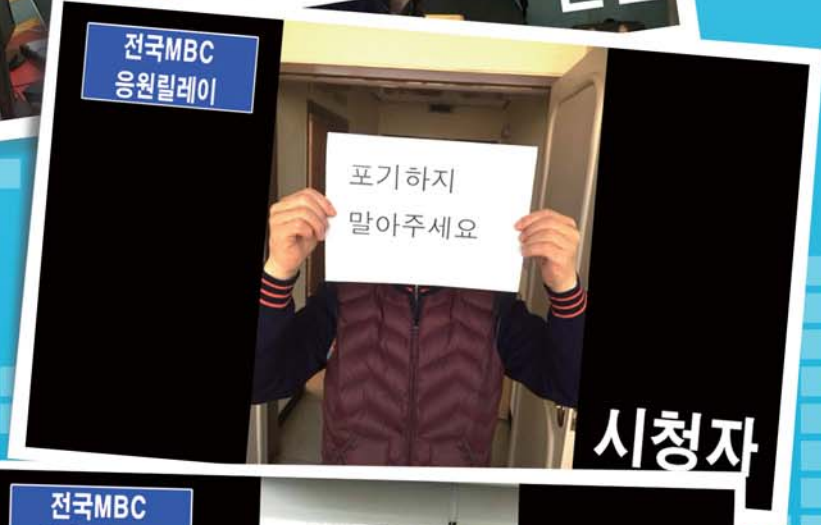
곽동건·이덕영·전예지 기자, ‘MBC 막내기자의 반성문’ 동영상 SNS 게시..
최기화 보도국장 흥분해 고성, 경위서 제출 요구.. 보도국 게시판에 기수별 성명 잇따라..



막내 신입기자들 세명의 반성문 동영상이 MBC 구성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MBC 뉴스의 몰락, 시청자들의 분노와 외면.. “MBC란 이름이 지금처럼 부끄러울 수 없다”는 게 구성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나서서 사죄할, 앞서서 반성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막내 기자들이 앞장섰다.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조회 수만 닷새 만에 22만 회를 넘겼다. 기사도 쏟아졌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막내 기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많았다. 포기하고 있던 MBC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반응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기화 보도국장은 6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흥분하며, 막내기자들 3명에게 오는 11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성원들은 격분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이토록 염치가 없을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가? 경위서는 누가 써야 하는 것인가? 보도국 게시판엔 다시 릴레이 글이 게시되고 있다. 전문을 게재한다.

(1월 9일 21시 현재)



굵게 처리된 것은 편집과정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누가 누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가?

보도국 42기(10사번) 곽승규 김정인 나세웅 남형석 박소희 염규현

막내 기자들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영상물을 제작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영상물의 제목은 '반성문'이다.
하여 묻는다. 법원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뉴스, 매일 타사에 물을 먹는 뉴스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시청률 2% 뉴스'의 책임자는 무얼 하고 있는가? 반성이 필요한 자가 반성하는 자를 벌하려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경위서 제출 요구를 철회하라. 경위서 제출이 징계의 사전 단계라면, 그 또한 중단하라. 징계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막내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을 대신해 참담한 MBC 현실을 사과했을 뿐이고, 다른 기자들보다 조금 더 용기가 있었을 뿐이다.

막내들은 이미 경위서를 냈습니다

보도국 40기(07사번) 강나림 고은상 김재경 박종욱 서유정 송양환 오현석 장인수 정진욱 조국현 조재영 조현용

45기 후배들이 시청자들의 질책과 우리 보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막내들이 만든 영상 자체가 일종의 경위서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제출한 경위서 말입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 뉴스 시청률을 살펴보십시오. 징계는 이미 시청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희도 후배들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손발과 같은 이들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뉴스를 회복시키지며 보듬을 일입니다.

막내들을 대신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보도국 38기(05사번) 강연섭 김지경 엄지인 이학수 전중환 정준희

저널리즘의 기본은 진실 추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보도국 책임자들은 진실 추구는커녕 수수방관했고, 신문과 방송들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실태를 드러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했다. 그래서 취재현장에서 쫓겨났고 로고를 가렸고, 심지어 '짚어봐'라는 말도 들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건 막내들이 아니고 보도책임자들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 확인이다. 태블릿 PC와 관련해 MBC 보도는 입수경위, 실소유주 의혹, 증거능력과 DNA 등을 거론했지만 팩트 없이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다했다면, 최순실과 정호성 측 변호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한 당사자들이 그 근거를 대라. 기자라면 말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권력에 대한 감시다. 또한 뉴스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하지만 MBC 뉴스가 공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어떤 조사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징계와 인사로 재갈을 물린 책임자들이 사퇴하고, 권력과 한 몸이 되려는 사람들 대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MBC 뉴스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경위서를 내야 할 사람은 보도책임자입니다

보도국 39기(06 사번) 남재현 박주린 박주일 신정연 이용주 이지선 임소정 임현주 전동혁 현기택

경위서를 내야 할 사람은 막내 기자들이 아닌 보도책임자입니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 대까지 추락한 보도참사에 대해 경위서를 써야 할 사람은 보도책임자입니다. 경위서를 내야 할 사람은 보직부장들입니다. 보도 책임자 앞에서 우리 뉴스의 문제점을 한 마디도 지적하지 못하고 보도참사를 방관한 보직부장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눈 감고, 입 닫고, 보직부장들의 지시에 따른 기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MBC 뉴스에 대해 반발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과 그 시간동안 켜켜이 쌓여버린 수치심과 염치와 부끄러움에 대해.. 막내 기자들이 대신해서 시청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책임자기 내뱉지 않는, 보직부장들이 외면해 버리는, 선배 기자들이 차마 떼지 못하는 '죄.송.하.다'는 한 마디를 막내 기자들이 먼저 입을 열어 전했습니다. 곽동건, 이덕영, 전예지 기자에 대한 경위서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위서 제출 요구 이전에 우리 뉴스가 이 지경이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경위서는 당신과 당신 옆의 사람들과 우리가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위도, 책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국 36기(03사번) 김세진 김준석 박민주 박영희 윤효정 이명진 이필희 이호찬 임명현 장미일 전훈철 조효정

4년차 기자들이 아직도 막내입니다. 날고 기며 이제 일 좀 한다 소리 들을 법한데, 여전히 막내입니다. 그 막내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모두를 대신해 반성했고, 당신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여 막내들의 질문을 못 들으셨다면, 질문을 이해 못하셨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MBC의 보도 책임자들입니다. MBC의 마이크에는 'MBC 뉴스'가 적힌 태그를 붙입니다. 그 태그를 떼어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지는 MBC 뉴스가 스스로 이름조차 숨기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당신들은 MBC 뉴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MBC 보도 차량과 현장 기자들을 향한 소리는 기자 개인을 향한 게 아닙니다, 고향과 쓴소리건, 격려와 칭찬이건 MBC 뉴스를 향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책임지는 MBC 뉴스가 '짚어봐' '부끄럽지 않냐'는 비아냥을 듣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당신들은 MBC 뉴스와 보도국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또한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안 된다는 목소리는 안 들리는 곳으로 내쫓고 부름 뜬 눈초리는 안 보이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닫은 입과 감은 눈으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지는 보도국 조직이 4년차가 4년째 막내 역할을 하도록 기형화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당신들은 MBC 뉴스를 만든다며 많은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여전히 MBC 뉴스를 책임진다고 마지막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지는 그 MBC 뉴스가 2%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MBC뉴스가 이름을 숨기고 비아냥을 듣고, 4년차가 4년째 막내인 경위를 모르겠다면,.. 최소한 당신들이 강조하던 잣대인 시청률에 대해서라도, 그 경위를 밝히십시오. 경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막내들은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용기 없던 부끄러움을 반성하며 작은 힘을 보탬니다.

‘청부’ 뉴스의 경위부터 밝혀야 합니다.

보도국 33기(01사번) 권희진 김현경 김혜성 노재필 민병호 박찬정 박충희
왕종명 이재훈 전봉기

시민들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된 MBC 뉴스를 최고의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자식을 수장시킨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비난 받았고, 동료 여당의원들로부터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된 8명의 친박 핵심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친박 의원의 평가는 지금 MBC 뉴스가 어디를 향해 구애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MBC 뉴스는 수백 명의 국민이 물속에 잠겨있던 그 시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식을 잃은 가엾은 부모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가 하면, 청와대의 비리를 들추겠다는 검찰관도 ‘특종보도’로 쫓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지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 같은 보도들을 쏟아낸 뉴스의 총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청와대 지키기에 방해되는 기자들을 내쫓으며 보도국을 ‘뉴스’ 생산이 아닌 이런 류의 보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만들고 활용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과오를 들춰내는 세력을 응징하는 현장에는 MBC 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MBC의 보도에서, 얼마간의 대가를 받고 사측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수사대나 해결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이 이처럼 전례 없는 청와대 비호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청부’ 보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는 거세하고 ‘청부’ 보도에는 충실한 결과, MBC 뉴스는 참담하게 몰락했습니다. 한 때 방송 뉴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MBC 뉴스는, 시청률은 고사하고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이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처럼 조직을 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일, 이

것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문명 사회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뉴스 책임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공식적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는 무언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MBC 뉴스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에는 입을 닫으면서도 뉴스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3년차 막내 기자들에게는 뒤에서 슬그머니 경위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추악합니다. 현장에서 모욕당하며 눈물을 삼키는 어린 기자에게 경위서를 묻기에 앞서 자신들이 주도한 ‘청부’ 보도 의혹의 경위부터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지금 MBC 뉴스가 처한 상황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개선하자는 고언조차 ‘해사행위’라며 가져왔던 이 징계하던 보도 책임자들의 그 혹독한 기준은, 스스로가 주도한 ‘뉴스의 몰락’이라는 ‘해사행위’ 앞에서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막대한 권한만 휘두를 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권위를 포기한 이 같은 권력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를 지탱해 온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은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엄중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권력만이 직위를 지탱하고 있을 뿐 MBC 보도를 이끌 그 어떤 자격도, 권위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몰락한 MBC 뉴스를 우리는 하루 빨리 재건해야 합니다. 지금의 MBC 뉴스를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지나 우리 뉴스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도 책임자들의 사퇴와 함께, 우리 뉴스는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첫 걸음을 하루 빨리 떼야 합니다.

‘경위서 타령’ (부제: 내야지요, 경위서)

보도국 35기(02사번) 권혁용 김우철 김재영 김정원 노경진 백승우 서현권
양윤경 이형빈 장준성 정규묵 정시내 현영준

당연히 내야지요, 경위서.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이 책임지는 주중,
주말 뉴스데스크가 창사 이래 최저의
시청률을 싹쓸이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내야지요, 경위서.

최저 시청률이 이어지는데도 속수무책인 보도책임자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건 무슨 경위인지,
내야지요, 경위서.

8시 뉴스라는 전선에서 SBS와 JTBC가 전력투구할 때,
우리는 물을 먹다 못해 이제는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사실 확인이 안 돼도 참피한 줄도 모른 채
능치고 넘어가는 보도국이 된 경위가 무엇인지,
내야지요, 경위서.

아픈 단독들로 타사를 농락했던 취재꾼들을 마음껏,

여한 없이 쫓아낸 뒤 엄선해 채용한 인력들이 무슨 경위로
타사에 농락당하고 있는 건지,
내야지요, 경위서.

전대미문의 시국에 질 떨어지고 감 떨어지는
큐시트로 길거리에서 기자들이 조리돌림 당하는 걸
왜 막내들이 반성문 쓰고 사과하고 있는지,
내야지요, 경위서.

받아야 할 경위서가 여러 장입니다.
당연히 내셔야지요, 경위서.

45기 기자들이 동영상 제작하게 된 경위라면
지난 4년을 살아 온 MBC 기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몰라서 새삼 묻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막내들이 그 영상을 제작하며 삼켰을 분루에서,
현 보도책임자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내방송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염치가 있다면
숫자로 철저히 증명된 무능력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십 년 후배들에게 경위서 타령하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지금 MBC가?

반성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보도국 43기(10사번) 손병산, 배주환, 이준범, 박진준

뉴스데스크 시청률 2%대, 취재 현장에서 쏟아지는 '엠빙신'이라는 야유, '오새 MBC뉴스 누가 보느냐'는 비아냥, 반성문을 써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당연히 보도 책임자가 반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3년차 기자들이 대신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욱하셔도 좋으니 부디 관심을 거두지만 말아달라고 처절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경위서까지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청자를 향해 반성을 하는 것이 MBC 뉴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는 것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뉴스에 지킬만한 명예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후배들이 했던 처절한 반성만이 우리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땅에 떨어진 시청자들의 신뢰는 이런 반성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동건, 이덕영, 전예지 기자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부당합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더불어 우리 뉴스를 이끌고 온 분들에게 지금의 보도 참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후배들과 함께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뉴스가 추락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보도국 41기 (08사번) 공윤선 김민욱 서혜연 양효걸 이남호 임경아 조의명

우리 뉴스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마음껏 취재 현장을 누벼야 할 막내 기자들이 현장에서 욕설에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다시, 반성문까지 써야 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대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 뉴스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졌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은커녕, 거듭된 낙종에도 눈을 질끈 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반 뉴스로 큐시트를 채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는지, 왜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왜 이제는 그 따가운 비난마저 고마울 정도의 차가운 '무관심'에 직면했는지, 이 모든 것을 고민하고, 답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막내 기자들이 아닌 보도책임자들입니다.

오히려 보도책임자들이 해야 할 답변을 막내 기자들이 했다고 그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MBC 뉴스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막내 기자들이 아닌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그리고 부장단입니다.

경위서가 아니라 사과하고 위로할 일이다

보도국 37기 (04사번) 김경호 남상호 박선하 신지영 유충환 이정은 전준홍 조윤정 최훈

막내 기자들이 용기를 냈다. 국민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MBC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이 그간 보도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후배들을 비롯한 많은 MBC 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뉴스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수뇌부는 꿈쩍도 안 했다. 그 누구도 보도 참사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 그 사이 뉴스는 시청자의 무관심속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 뉴스에 한 숨이라도 불어넣으려는 후배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선배들은 경위서를 요구하기에 앞서 반성하고 위로해야 마땅하다.

보도국 간부들은 영상 속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그저 일부 편향된 집단의 우격다짐으로만 보이는가. 자사의 MBC 기자가 그런 '부조리한' 수모를 당한 거라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격려나 위로의 말을 건네기라도 했는가.

스트레이트 뉴스가 넘치는 이 시국에도 늘 기사가 모자라다면서 하루하루 뉴스를 채워가기도 버거워하는게 우리 뉴스의 현 상황이다. 우리 뉴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 보도 수뇌부들은 남 탓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파업 탓을 들더니, 나중에는 뉴미디어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탓했다. 능력 있는 기자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채 대신 능력이 검증된 경력 기자를 채용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적응시간이 필요하며 시간 탓을 해왔다. 자사 뉴스를 비판하는 "애사심 부족"한 직원들도 탓한다. 의혹 보도를 생산하는 절대 다수 언론을 탓하고, 급기야 각종 현 시국에 분노하는 국민과 시청자들에게까지도 탓을 돌린다.

이렇게 피해망상에 빠져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리보전에 급급해 하며 무비판적인 친위대 구축에만 열 올렸던 보도국 간부들이 지난 5년간 남긴 성적은 2%대 뉴스 시청률과, '소신 있는 왕따'를 자처한다는 정신승리 뿐이다. 대한민국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의 한복판에 있어야 할 공영방송 뉴스가 스스로 고립무원의 성 안에 갇혀버렸다.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을 밖에서 열 어줄리 만무하다. 되레 나오지 말라며 밖에서 문에 대못질을 할 위기다.

차제에 후배들이 먼저 용기를 냈다. 문을 열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MBC 뉴스라는 사람들의 희미한 기억의 불씨를 되살려보려는 호소인 것이다. MBC 뉴스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후배들의 행동에 무턱대고 징계 카드를 꺼내는게 '해사 행위'라는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도 책임자들에게 역시 그 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떤 경위를 알고 싶으신 겁니까?

국제부 이기주 기자

"새누리당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지난 가을 한 정치인이 뜬금없이 과거를 고백(?) 했었지요. 같은 당 의원들이 다들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요. MBC에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 하지만 우리는 지쳐 있었고 체념하고 있었습니. 그래서 부끄럽지만 외면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서로 다 알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일어나며 자성조차 하지 않았습니. 부끄럽다, 반성하자, 이래서야 되겠느냐. 누구 하나 나서지는 사람 없었습니.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MBC 뉴스의 시청률은 곤두박질 쳤고,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들은 갖은 욕설과 폭행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죄와 반성 없는 MBC 뉴스는 계속됐습니. 기자들의 진심어린 성명에도 인터넷 상에서의 반응은 따갑고 냉소적이었습니. 시청자들에게 MBC 뉴스는 식상했고, 낙인이 있었으며, 바로 서자고 외치는 기자들의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막내들이 나섰습니. 막내들이 나선 경위를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 일 것입니다. 막내들의 사과는 진솔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막내들은 직접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 자랑스럽습니. 대견합니다.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 그런데 이들에게 칭찬은 못해줄망정 대체 어떤 경위를 물으려는 것입니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막내 기자들이 아닙니다.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할 사람들도 막내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당장 거두고, 보도 책임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족함을 알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MBC가 바로 서고, MBC 뉴스가 살아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체 어떤 경위를 더 알고 싶으신 겁니까?

HAPPY NEW YEAR

**2017년 정유년 (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해직 언론인 전원 복직!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7년-그들이 없는 언론

2017. 1. 12 대개봉

이용마 기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